

**덱트론,
컬러LCD MP3P 출시**

디지털오디오 및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인 덱트론(대표 오충기 <http://www.decktron.com>)이 컬러 LCD를 채용한 플래시메모리 타입 MP3플레이어 '아이엠피아(IMP-8000)'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컬러 LCD 화면을 통해 가사를 보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P로 세련된 금속성 이미지가 돋보인다. USB 2.0을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파일을 받을 수 있으며, 리튬폴리머 충전지가 내장돼 있어 1시간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17시간까지 재생된다.

MP3, WMA, OGG 파일 재생은 물론, USB 저장기능, 음성녹음, MP3 인코딩, 가사지원, 다국어지원 기능 등이 있다. 메모리 용량은 128MB, 256MB, 512MB, 1GB 까지 다양하다.

가격은 256MB 기준으로 20만원 안팎이다.

덱트론은 "두께가 14.5mm로 얇아 목걸이로도 손색이 없다"며 "이 달 중순 홍콩전시회에 제품을 전시해 이미 유럽 각지에서 수주를 받은 상태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국내 소비자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말로 전화거는』인테나
슬라이드폰 출시**



삼성전자가 어떤 전화번호든지 부

르기만 하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말로 전화거는" 인테나 슬라이드폰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말로 전화거는 인테나 슬라이드폰(모델명: SCH-S140)은 음성인식 기술을 보다 강화한 『디짓 다이얼(Digit Dial)』기능을 채용해, 저장된 내용과는 상관없이 어떤 전화번호든지 불러주지만 하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제품이다.

애니콜 S140의 「디짓 다이얼 기능」은 視覺이 불편하거나 휴대폰의 작은 버튼을 정확히 누르기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품은 한 손에 꼭 쥘 수 있는 컴팩트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인테나 슬라이드폰으로, 최근의 추세에 맞춰 백만화소 카메라와 고광도 플래시를 함께 갖추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가전제품에 적용되어 '웰빙' 상품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은 '은나노 항균기능'을 적용해,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7월 중국에 출시한 CDMA 자바(JAVA)폰에 은나노 항균 기능을 최초로 적용한 데 이어, 8월 국내에 출시한 진동스피커를 채용한 메가픽셀 슬라이드폰(모델명: SCH-V540)의 실버색상에 은나노 항균기능을 국내최초로 적용했었다.

애니콜 S140에는 젊은층의 감각에 맞춘 MP3기능, 학습에 도움을 주는 영한사전과 한영사전 기능, 신용카드·계좌조회·송금·교통카드 등의 역할을 지원하는 모바일뱅킹 기능, 스팸 메시지를 차단기능 등 유용한 기능도 많다.

"말로 전화거는" 인테나 슬라이드폰 S140의 가격은 60만원 초반대다.

**삼성전자,
세계최초 500만화소 카메라폰 출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00만화소



카메라폰을 개발, 이달 말 출시예정이다. 전문기관과 업계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진 500만화소 카메라폰 등장을 세계 휴대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제품은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 기술인 1,600만 컬러 LCD와 문자 음성변환(TTS)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을 겸비한 최고급 휴대폰이다.

□첨단기술 집약된 삼성전자 500만화소 카메라폰

삼성전자 500만화소 카메라폰(모델명 SCH-S250, SKT용)에는 '스트레치(Stretch)'형 디자인이 새롭게 도입됐다. 렌즈와 LCD 덮개를 위로 당겨 올리는 형태인 '스트레치' 스타일은 영화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였던 '매트릭스폰'과 흡사하다. 이 디자인은 고화질 렌즈와 고해상도 LCD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가로로 촬영하는 디지털카메라 느낌을 살리기에 적당하다.

삼성전자가 500만화소 카메라폰 개발에 착수한 시점은 500만화소급 디지털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지난해 상반기 그리고 지난 7월 일본의 렌즈 전문회사 아사히 펜탁스(Asahi Pentax)와 공동으로 진행한 500만화소 카메라모듈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이 모듈과 최고급 사양 휴대폰을 유기적으로 연동시키는데도 성공했다.

삼성 500만화소 카메라폰에는 디지털카메라에 적용되는 부품들을 소형화하면서 고화질을 유지하는 첨단 기술들이 적용됐다. 500만화소폰 CCD 센서는 동급 디지털카메라에 비해 크기가 2분의 1 정도로 작다.

특히, 500만 화소 휴대폰용 렌즈는

디지털카메라에 비해 크기가 20분의 1 정도로 작아졌지만 디지털카메라 화질을 유지시키는 새로운 첨단기술이 적용됐다.

또, 삼성전자는 초정밀 센서기술을 개발, 500만화소 카메라폰에 적용해 픽셀크기 2.2 μ m \times 2.2 μ m 에 성공함으로써 그 동안 2.8 μ m \times 2.8 μ m 에 머물렀던 디지털카메라 화질 선명도를 40% 정도 개선했다.

이 제품에는 현존하는 최고급 디스플레이 기술인 1,600만 컬러 QVGA TFD-LCD가 국내업체 처음으로 사용했다.

TV와 모니터 등에만 쓰이던 최고급 기술을 휴대폰에 적용함으로써 휴대폰 디스플레이 기술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600만 컬러 LCD는 그 동안 휴대폰에 적용된 최고 기술인 26만2천 컬러에 비해 60배 이상 섬세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며, 모든 물체의 색을 자연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 '트루컬러(True Color)'로 불린다.

QVGA급 큰화면으로 동영상도 녹화할 수 있고, 캠코더처럼 일시정지(pause) 기능도 있어 편리하다. 내장 메모리 92MB와 함께 보조메모리 32MB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셔터속도는 최대 1천분의 1초까지 가능하며, 원거리 풍경에서부터 아주 가까운 10cm 접사까지 촬영 범위가 넓다.

TV와 연결하면 촬영중이라도 TV화면으로 촬영 내용을 볼 수 있고, 촬영 후에는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을 TV로 볼 수 있는 'TV연결' 기능이 있다.

한 차원 높게 진화된 음성인식 기능으로, 문자메시지·일정 등을 음성으로 변환해 들려 주는 'TTS'(Text To Speech : 문자음성변환) 기능도 돋보인다.

고화질 게임과 고성능 3D 입체음향을 지원하며, 게임 중에 전화가 오더라도 통화를 마치면 게임하던 상태 그대로 복구된다.

고급 휴대폰에 있는 MP3·모바일

뱅킹(M뱅크)·64폴리 등 최신 기능들도 모두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은 "삼성전자 500만화소 카메라폰 조기 성공은 한국 휴대폰 기술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쾌거"라고 강조하며 "삼성 휴대폰 기술이 세계 휴대폰 산업을 성장시키고, 편리한 생활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세계 최고 기술과 디자인 파워를 활용해 앞으로도 더욱 차별화된 제품 개발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카메라폰 역사는 삼성이 쓴다

삼성전자는 '00년 7월 세계 처음으로 휴대폰에 디지털 카메라를 내장한 35만화소 카메라폰(모델명 : SCH-V200)을 출시했다.

그리고 '03년 10월 130만화소 카메라폰을 선보였다. '04년에는 TV연결이 가능한 200만화소 카메라폰에 이어 세계 최초로 광학 3배줌 300만화소 카메라폰을 출시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메가픽셀폰을 처음 선보인 후 꼭 1년 만에 업계와 전문가들 예상을 깨고 세계 최초 500만화소 카메라폰까지 출시함으로써 세계 휴대폰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지난 해 9월 "카메라폰의 500만화소는 2007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었다. 삼성전자는 업계 전망치 보다 무려 3년이나 앞선 것으로, 또 한 번 세계 카메라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셈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200만화소, 300만화소에 이어 세계 최초 500만화소 카메라폰을 연속적으로 선보인 데 비해 일본업체들은 300만화소에 노키아·모토로라 등 歐美 선진업체들은 아직 100만화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다른 업체들 간 카메라폰 기술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카메라폰에 관한 삼성전자 기술 주도권은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 휴대폰의 디자인 혁신은 계속된다

삼성휴대폰은 디자인과 기능에서도 세계 휴대폰업계를 선도하면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삼성전자 카메라폰 디자인은 '00년 플립형에서 시작했다. '02년 듀얼폴더형과 카메라/폴더 회전형에 이어 '03년 슬라이드업과 폴더 회전(스윙)형까지 선보였다.

'04년에는 인테나형에 이어 캠코더 스타일 200만화소 카메라폰, 디지털카메라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한 300만화소 카메라폰을 선보였다. 특히, 300만화소 카메라폰에서는 렌즈가 앞뒤로 움직이는 연속광학 3배줌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로보기(Pivot)' 기능을 지원하는 '가로화면' 메가픽셀폰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500만화소 카메라폰에 적용된 '스트레치(Stretch)'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삼성 휴대폰 디자인 경쟁력은 세계 최고·최초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3 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는 기존 다 결정 실리콘 태양 전지의 전극을 3개로 집약, 원가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태양전지를 생산해 휴대용 기기·전자자동차·저궤도 인공위성 등 분야에서 태양전지의 보급확대를 앞당기는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 회사 기흥중앙연구소 에너지랩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개발 과제 참여를 계기로 일본 교세라·샤프·산요, 영국 비피솔라 등 해외 업체들이 개발중인 후면전극형 및 3 결정 방식의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 대열에 본격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사는 올 초 태양전지의 전 단계 기술인 다 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개발해 조선대 등 두 곳에서 시험 사용해본 결과, 에너지 변환효율이 15.5%로 나타나 해외 경쟁 업체 대비 대등한 수준을 보여 3 결정 실리콘 제품 개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삼성SDI 측은 “그동안 축적된 실리콘 내 불순물 및 결합 제어 기술·정밀 제어 기술 등을 바탕으로 고효율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개발한다”며 “특히 전극설계 기술 및 전극재료의 저가화, 사진식각공정의 최소화에 관한 공정기술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이번 실리콘계 태양전지 이외에도 유기물 재질의 태양전지 등 차세대 소재 및 제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어 리튬 이온 및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와 더불어 청정에너지업체로서의 면모를 한층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

LG전자, 「세계최초 콤비 복합 셋톱박스 출시」



LG전자가 세계최초로 DVD, VCR, 디지털방송수신 셋톱박스를 융합한 컨버전스 제품을 내놓았다.

LG전자(대표 金雙秀/www.lge.com)가 디지털·아날로그 방송은 물론이고 DVD 및 VCR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콤비 복합 셋톱박스를 출시함으로써 A/V복합 셋톱박스 시장이 본격 개막될 전망이다.

이번에 출시된 콤비 셋톱박스는(모델명: LCS-1000)은 DVD/VCR 기능을 단순하게 복합한 셋톱박스 개념을 넘어서, DVD/VCR에 대해서도 HD급(1080i/720p) 영상 출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방송 및 DVD/VCR 신호를 하나의 연결 단자를 통해 출력해주는 싱글아웃(Single Out) 기능을 구현하였다.

따라서 기존 DVD와 VCR의 복합 제품인 DVD콤비와는 달리 DVD/

VCR을 감상할 경우에도 더 좋은 화질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다가 DVD/VCR을 시청할 때에도 별도의 TV모드 혹은 외부입력모드로 전환없이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DivX CD, DVD±R/RW, MP3/WMA CD 재생 지원 및 PAL 방식 디스크, 6헤드 VCR 기능 등 기존 DVD콤비가 가지고 있는 기능 대부분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방송프로그램안내(EPG)를 통한 VCR의 편리한 예약녹화 기능은 VCR을 통한 녹화의 번거로움을 제거하였으며 A/V, S-영상은 물론이고 DVD단자, PC단자, DVI 단자 등 다양한 영상 출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5.1채널 음성출력을 지원함에 따라 앰프와 스피커만 별도로 연결하면 홈씨어터까지 구축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고화질 및 고음질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A/V기기이다.

그 동안 다양한 A/V기기(VCR, DVD 등)로 인해 실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도 각 기능별 출력단자를 일일이 선택해야 하는 고려할 때 이번에 출시된 콤비복합 셋톱박스는 대표적인 A/V 기기인 DVD·VCR는 물론 셋톱박스를 하나의 출력단자로 구현할 수 있어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증대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LG전자 디지털AV사업부 최동진(崔東辰) 상무는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해소를 계기로 국내 셋톱박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점차 복합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지난해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내장형 셋톱박스(모델명: LST-3430) 및 세계최초로 출시한 HD급 DVD플레이어 복합 셋톱박스(모델명: LST-3500) 등 다양한 컨버전스 셋톱박스를 출시한데 이어 이

번에 출시된 콤비 복합 셋톱박스를 계기로 셋톱박스의 융복합 로드맵에서 보다 앞서게 되었으며 A/V복합 셋톱박스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니코리아, 전문가급 HD 캠코더 출시



방송국에서나 사용되던 HD캠코더를 일반 소비자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소니코리아(대표 이명우 <http://www.sony.co.kr>)는 HDV 1080i 방식으로 고화질 영상을 구현한 'HDR-FX1' HDV 캠코더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소니 핸드캠 'HDR-FX1'은 현재 국내 방송국에서 주류를 이루는 'HDV 1080i 방식'을 채택했고 총 112만화소의 3CCD 시스템으로 구성, 고해상도 동영상 및 정지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소니가 독자 개발한 실시간 인코드/디코드 시스템인 'HD 코덱 엔진'을 탑재해 기존 비디오 신호보다 4배 이상의 HD 영상 정보를 고품질, 고효율로 압축할 수 있고 DV 포맷과 동등한 비트 레이트로 기록, 재생할 수 있다.

또 72mm 대구경 칼자이스 바이오조나 T-스타 코팅 렌즈를 탑재하고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촬영할 수 있다.

소니코리아 김근호 이사는 “방송국과 같은 제한된 분야에만 사용됐던 HD캠코더를 일반 소비자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전문가가 촬영한 것처럼 부드러우면서 깊이있는 홈 비디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HDTV 보급과 함께 HD캠코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예약 판매를 실시하며 소비자가격은 415만원이다.

한편 HDV란 DV 포맷 카세트에 HD 영상과 음성을 기록, 재생하는 포맷으로 HD 전용 미디어를 구비하거나 촬영법을 익힐 필요가 없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오토닉스, 수출 1,000만달러 달성 눈앞에



공장자동화 기기로 수출 1,000만달러 달성을 앞둔 중소기업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센서 및 제어기기 전문제조업체 오토닉스(대표 박환기 <http://www.autonics.co.kr>)가 그 주인공인 오토닉스는 올해 800만달러 가량의 수출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수출 1,000만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사는 지난 82년 10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 2000년에는 수출 500만달러에 이르렀으며, 5년 만에 1,000만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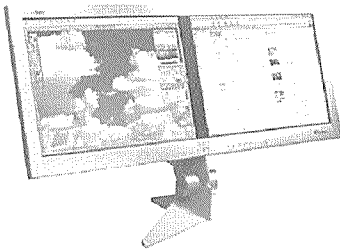
오토닉스가 1,000만달러 수출과 공장자동화기기 점유 국내업체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다. 소량이라도 다품종이 경쟁 무기인 셈이고, 이 회사는 대기업이 진출하기 힘든 센서, 모터, 제어기기 부문에서 매출 10%이상을 매년 투자해 연구개발에 힘써왔다.

특히 오토닉스는 96년에 인도네시아와 일본 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2001년 미국과 중국에 지사를 세웠으며 그 다음해에는 중국 자싱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세계 시장공략을 가속화했다. 최근 이란,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지에도 인력을 파견해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박환기 사장은 “다양한 자동화산업 관련 제품을 100% 국산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전세계 어느 고객이든 오토닉스의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공장자동화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레전자, ‘듀얼모니터’ 국내 출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보면서 작업할 수 있게 해 주는 LCD ‘듀얼모니터’가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다.

디스플레이 전문업체인 이레전자산업(대표 정문식 <http://www.erae.co.kr>)은 PC 한 대에서 15인치 모니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듀얼모니터 ‘더블사이트(모델명 DoubleSight DS-1500K)’를 시판한다고 밝혔다.

‘더블사이트’는 모니터 하나로는 인터넷 검색이나 실시간 조회 업무를, 다른 모니터로는 문서작성과 같은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모니터 여러 대를 복잡하게 연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간은 줄이면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회계사나 웹사이트 개발자, 외환딜러, 증권사 애널리스트, 금융전문가 등 멀티태스킹형 유저에게 유용하다.

제품 가격도 74만원으로 40만원대의 15인치 LCD모니터 두 대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한편 이 제품은 이레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올 초 미국과 중국, 홍콩에 출시된 후 델닷컴(Dell.com)과 타이거다 이렉트 등 미국내 유통망과 대학, 공공

기관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으로 국내에는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이레전자 정문식 사장은 “인터넷과 문서작성, 기타 응용프로그램 등 여러 화면을 모니터 하나에 띄워놓고 작업하던 것을 두 개 화면을 보며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20~40% 가량 업무효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조만간 17인치와 19인치 모델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레전자, PMP ‘포체 디지털’ 출시



디스플레이 전문회사인 이레전자(대표 정문식)가 이달 말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포체 디지털(모델명 F1-2210)’을 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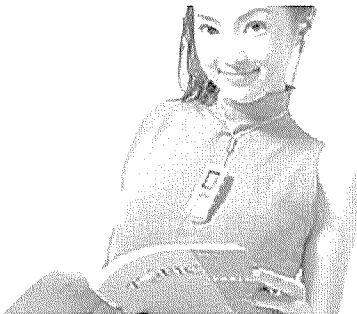
‘포체 디지털’은 음악파일은 물론 뮤직비디오·영화·TV방송 등 동영상까지 저장, 재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기로 2.2인치 초소형 LCD화면에 8.9×5.7×1.8cm의 초소형을 자랑한다. 기존 제품들이 200~300g대로 휴대하기에 다소 무거운 반면, 이 제품은 플래시메모리 방식의 저장장치를 채택해 무게를 95g으로 줄였으며 바닥에 떨어뜨려도 제품이나 데이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레전자는 MP3플레이어와 유사한 가격인 30만원대로 가격을 책정, MP3플레이어 교체 및 신규수요를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이레전자 정문식 사장은 “MP3플레이어 가격으로 음악과 뮤직비디오,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시킬 것”이라며

“향후에는 제품에 TV기능과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캠코더 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트로닉스,
어학기능 강화 MP3 플레이어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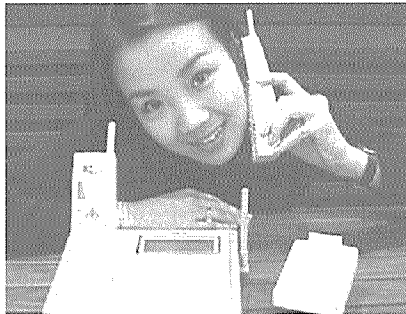
이트로닉스(대표 강석규 <http://www.inkel.co.kr>)는 어학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반복 기능과 재생속도 ±5단계 총 10단계 조절이 가능한 MP3플레이어 ‘인켈 MF-25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다이렉트 인코딩 기능을 활용해서 기존 어학테이프를 별도 기기 없이 MP3 파일로 전환할 수 있고, 라디오 어학프로그램 청취시 동시녹음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또 전문 보이스 리코더 수준의 음성 녹음이 가능해 강의내용을 녹음하고 이어폰으로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어학발음 교정에도 유익하다.

USB 포트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내장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PC와 연결해서 MP3, WMA, ASF 등 오디오 파일과 어학, 문서, 사진, 음성녹음 파일 등을 자유롭게 업·다운로드할 수 있다. 가격은 20만8,000원(256MB)이다.

**이트로닉스,
위키토키 전화기 출시**

이트로닉스(대표 강석규 <http://www.vatel.co.kr>)는 다른 방에 있는 가족과도 원거리 대화를 할 수 있는 위키토키 무무선 전화기 ‘바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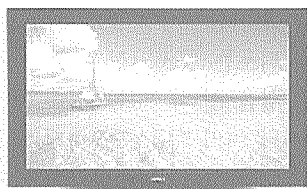


VT958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전화기 본체와 위키토키 기능을 채용한 무선전화기 2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선전화기로 통화하는 도중 본체 스피커를 통해서 통화내용을 청취할 수도 있다. 또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12종류 16화음 벨소리로 상대방을 쉽게 구별할 수 있고, 본체 및 무선전화기의 대형 LCD에 발신자 정보가 표시된다.

이외 전화번호부 기능, 대기화면 편집 기능, 단축 다이얼 기능, 통화거리 이탈 및 재충전 경고기능, 알람기능,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발신번호 방지 및 익명전화 수신거부 기능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제공된다. 가격은 18만원대다.

**휴맥스,
42인치 PDP TV 생산**



디지털가전 전문기업인 휴맥스(대표 변대규 <http://www.humaxdigital.com>)가 세계 처음으로 유럽 디지털 지상파 방송규격(DVB-T)에 맞춘 셋톱박스 내장형 42인치 PDP TV(모델명 PAU-42THD)를 개발 완료하고 출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유럽 디지털 지상파 방송규격을 수용하면서도 HD급 고화질 디지털방송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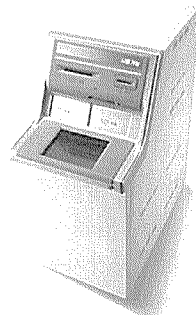
장의 방송특성을 감안, HD급 셋톱박스를 내장한 것으로 해당 소비자가는 600만원(원화 기준) 수준이다.

별도 첨단 이미지 프로세서를 채용, 고화질을 구현했으며 트루서라운드(Trusurround) XT기술을 통해서 3D 입체 음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모드로 화면을 분할할 수 있으며, DVI(Digital Visual Interface)를 통해서 디지털 영상과 음향을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11월경 첫 선을 보일 예정으로 이미 지난 20일과 26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순회 로드쇼가 개최됐다.

휴맥스 관계자는 “이후 호주에서 시장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호주의 경우 HD방송 시간으로 주당 100시간을 의무적으로 송출토록 하고 있는 등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엔시스, ezATM 500, 업계 최초
우수산업디자인 선정**



LG엔시스는 올 7월 신규출시한 현금입출금기인 ‘ezATM 500’이 업계 최초로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2004년

‘우수산업디자인(GD : Good Design)’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굿디자인(GD) 마크가 부여되는 이 상품의 선정 심사기준은 심미성, 품위성, 독창성, 안전성, 사용의 편리성, 품질의 우수성, 환경친화성, 경제성 등 필수평가항목과 추가로 디자인의 탁월성 등 종합적인 관점의 평가가 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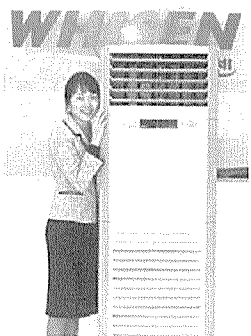
LG엔시스의 ezATM 500은 특히 ATM이 고객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형태를 분석해 그 통계치를 제품의

디자인에 접목함으로써 편리성을 높였으며, 현금 입·출금시 사용현황과 사용부위를 나타내 주는 등 편의성을 고려한 플리커 램프(Flicker Lamp)와 인디케이션 라이트닝(Indication Lightening)등이 호평을 받았다.

출시 직후 농협과 정통부 등에 공급된 이 제품은 국내 최단시간의 현금 및 수표 입출금 속도로 고객의 조작시간을 최소화해 준다. 아울러 자체진단기능 및 동영상을 통한 예방보수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지능형 ATM으로 무장애율을 지향한다. 금융자동화기기 관리솔루션인 'ezTAMS'와 연계해 자동화기기 운용관리 시스템 도입 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사전 장애예방이 가능해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금융자동화기기 중 최초로 우수산업디자인 제품으로 선정된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작년에 동종업계 최초로 A/S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금융자동화기기의 핵심제품이라 할 수 있는 ATM이 우수산업디자인 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서비스와 제품 부문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차별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발,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융자동화기기 부문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G전자, '두개의 컴프레서' 채용한 신개념 냉난방기 출시



Multi Power System)방식 냉난방기'

LG 전자가 두개의 컴프레서(압축기)가 냉난방 효율을 높여주는 '신개념 멀티파워 시스템(MPS : Multi Power System)방식 냉난방기'

를 출시했다.

냉난방기는 에어컨과 난방기 기능을 함께 갖춰 필요에 따라 4계절내내 쓸 수 있는 제품이다.

LG전자는 이제품에 냉난방기로는 최초로 '휘센에어컨'의 기술인 'MPS 용량가변형 히트펌프'를 도입해 에어컨 사이클을 반대로 돌려 실내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오는 '히트펌프' 방식을 구현했다.

또한 이제품은 용량이 다른 두개의 컴프레서(용량비 60%/40% 두개의 컴프레서)를 도입해 절전 성능 및 제품의 안정성을 개선했다. 휘센에어컨에 사용하던 TPS(Twin Power cooling System) 방식을 응용해, 기존에 하나의 컴프레서를 사용하던 냉난방기 방식에서 벗어나 두개의 압축기를 장착한 것이다.

즉, 이 제품은 희망온도 도달시 두개중 하나의 컴프레서만 작동해, 불필요한 운전을 방지함으로써 기존대비 최대 40%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한편, 작은 용량의 압축기가 교대로 작동해 큰 용량을 가진 하나의 압축기가 운전할 때 보다 소음도 크게 줄었다.

이밖에 이 제품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대비, 난방사이클 개선 및 보조히터 장착을 통해 난방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24단계 자동제어시스템도 갖춰 실내공간을 쾌적하게 유지시킨다.

LG전자는 '신개념 MPS방식 냉난방기'를 소규모 상가, 공장, 음식점, 사무실, 병원 등 공공장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제품은 15평, 18평, 28평, 40평, 58평, 83평 등 평형수에 따라 2백만원에서 6백만원대까지 다양하다.

『LG전자, 안팎살균 시스템 적용한 05년형 공기청정기 “클레나(Klena)” 신모델 출시』

LG전자가 제품 내부까지 살균이 가능한 05년형 공기청정기 '클레나

(Klena)' 신모델 9종을 출시했다.

LG공기청정기 클레나(Klena) '05년형 신제품은 외부공기를 살균하는 '솔다트(Soldat) 살균이온' 기능과 제품 내부의 미세먼지에서 발생하는 세균을 살균해주는 '나노 바이오 살균(NBF)필터' 기능을 갖춘 안팎살균 기능 제품이다.

이제품의 '솔다트(Soldat) 살균이온' 기능은 연세대 생물 산업소재연구센터에서 99% 살균제거 인증을 받았고, 공기청정기 제품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살균/항균 공식 인증인 한국소비과학연구센터의 SF(Sanitary Finished, 위생가공)마크도 취득했다. 또한 물세척이 가능한 반영구적 '워셔블 헤파(Washable HEPA)필터'를 갖춰 기존 공기청정기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필터 교체 불편함을 없앴다.

이외에도 'LG전자 공기청정기 클레나(Klena)는 360o 입체디자인을 도입해 실내에서 어떤 각도로 비치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고, 10면 입체흡입 기능도 갖춰 쾌적한 실내공기를 제공한다.

LG전자는 05년형 클레나 출시를 기념하여 이사, 결혼, 출산을 하는 소비자에게 공기청정기 클레나 가격을 10만원 할인해 주는 'LG 공기청정기 Klena 새출발 페스티벌'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사, 결혼, 출산을 했거나 예정하고 있는 고객이 청첩장이나 출생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갖고 행사모델을 구매하면 값을 할인해 준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LG전자 홈페이지(<http://www.lge.co.kr>)에서는 퀴즈정답자 추첨을 통해 고객들에게 LG공기청정기클레나를 제공한다.

LG전자 청소기 사업부장 송대현 상무는 “이제품은 업계최초로 살균인증 SF 마크를 취득한 제품으로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됐던 공기청정기의 살균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제품이다”고 밝히고 “LG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공기청정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